

투데이칼럼

출근길부터 위험하다... 일상 속에서 시작되는 안전문화

“출근하다 다친 건 내 잘못인가요?” 출퇴근길 빗길에 미끄러진 한 근로자의 질문이 가볍지 않다. 대부분의 사람에게 ‘출근길’은 하루의 시작이자 습관처럼 반복되는 일상의 일부지만, 산업재해 통계에서는 결코 가벼운 항목이 아니다.

실제로 전체 산업재해 중 출퇴근 재해 비율은 매년 꾸준히 8~10%에 달하며, 특히 도로나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하는 사고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하지만 출퇴근 재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아직 미미하다. “출근길까지 사업장이 책임져야 하나?”라는 반문도 여전하다. 그러나 안전은 ‘출입문’ 안에 서만 작동하는 시스템이 아니다. 실제 사고는 작업장 안이 아닌 그 경계에서 더 자주 발생한다.

지하철역 계단에서 미끄러지

거나, 자가용 운전 중 졸음으로 인한 추돌사고,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충돌 등은 모두 출근이라는 목적을 향한 ‘이동 중 재해’다. 문제는 이 사고들이 대부분 ‘개인의 부주의’로 치부되어 예방대책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제는 안전문화를 ‘근로시간 이후’와 ‘이동 중’까지 확장해 바라봐야 한다. 출퇴근길 안전사고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조직의 안

전관리 범주 속에 포함되어야 할 영역이다. 예를 들어, 출퇴근 교통사고 다발지역 정보를 전파하거나, 겨울철 빙판길 주의 안내, 보행자용 안전용품(아랑 밴드, 미끄럼 방지 스프레이 등) 지급과 같은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조치들이 충분히 가능하다. 또한, 재택근무나 탄력근무제 도입도 혼잡시간을 피해 출퇴근길 리스크를 줄이는 안전경영의 일환으로 바라볼 수 있다.



김용배
인천보건공단 전북지역본부 부장

근로자 스스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어폰을 꽂은 채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스마트폰을 보며 지하철 계단을 오르는 습관은 작은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지는 대표적 사례다. 안전은 ‘출근 후’가 아니라 ‘집을 나서서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우리는 종종 ‘중대재해’에만 집중하지만, 일상의 작은 사고들이 쌓여 사회 전체의 안전 수준을 결정한다.

출근길에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는 습관, 계단 앞에서 한번 멈추는 실천이 곧 안전문화의 시작이다.

사업장은 ‘출근 전에도 안전한 사람’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고, 근로자는 ‘나부터 안전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안전은 책임이 아니라 문화다. 그리고 그 문화는, 아침 출근길부터 시작된다.

사설

전주 대자인병원 ‘환자중심 진료 연계’

전주 대자인병원이 6월 2일 고려대학교의료원과 환자 중심의 진료 연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수도권 상급종합병원과 지역 중추병원 간 진료 전달 체계를 공식화했다. △진료 의뢰·회송 시스템 고도화 △의료진 교육 및 연수 △전문 의료지식 교류 △지역 주민 대상 건강증진 프로그램 공동 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협약을 통해 대자인병원은 고난도 질환에 대한 신속한 진료 연계와 전문 진료 접근성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지역 환자들의 치료 선택권이 확대되고 치료 전후에 걸친 지속적인 관리 또한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병관 대자인병원장은 “지역과 수도권 의료기관이 ‘환자 중심’이라는 공통된 가치를 바탕으로 협력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고려대학

교의료원의 뛰어난 임상 역량과 대자인병원의 지역 기반 진료 노하우가 상호 보완된다면, 환자에게 최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자인병원은 550여 병상 규모에 37개 진료과목, 120여 명의 전문의를 갖춘 종합병원으로, 응급의료기관평가에서 7년 연속 A등급을 획득한 전북 유일의 지역 거점응급의료센터다.

이에 앞서 대자인병원 자매병원인 인산의료재단 자인플러스병원도 5월 21일 고려대학교의료원과 환자 중심의 진료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협력에 나섰다.

자인플러스병원은 지난해 2월 최신 의료 장비와 인력을 갖추고,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에 200여 병상 규모로 개원한 척추·관절·재활 중심 병원이다. 간호간병서비스 병동과 중환자실, 야간응급 진료실을 운영하고 있다.

노인복지사업 미끼로 사기 늘어

최근 노인복지사업 공공단체로 가장해 노년층의 재산을 노리는 일이 늘고 있다. 고정 수입이 없어 노후를 걱정하는 장년층과 노인층의 불안 심리를 틈타 자금편취를 노리는 불법업체가 등장한 것이다.

불법업체들은 보건복지부 산하의 노인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공공단체로 가장해 공공조합원 가입을 유도하고, 개인정보 입력과 예약금 입금을 요구한다.

공공예약금은 예금보험공사에서 정책 보장해 일자리 지원과 함께 납부액의 월 1.2~1.8%를 매월 장려금으로 지급한다는 허위 광고로 현혹하고 있다.

정부가 지원하는 노인 공동체 사업으로 가장해 공공조합원 모집을 위한 가짜 사이트도 개설했다. 보건복지부를 상징하는 로고를 배치하고 공공기관인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조직도 및 게시판을 도용해 소비자들의 착각을 유발했다. 방송사를 사칭한 유튜브 계

정에 정부가 지원하는 노인 공동체 사업으로 오인케 하는 거짓 홍보 영상도 실제 뉴스 영상과 교묘히 혼합·편집해 게시했다.

일자리 지원과 매달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허위 기사를 인터넷 뉴스와 블로그에 반복적으로 올리고 수십 개의 긍정적 조작 댓글로 소비자들을 현혹했다.

불법업체의 감언이설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을 숙지해야 한다. 우선 정부·공공단체로 가장해 원금보장·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 유사수신·사기 가능성을 의심해야 한다.

인터넷 및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한 중앙부처 모든 복지사업은 국민복지포털 복지로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원금·고수익을 보장하면서 투자금을 모집할 때는 금융감독원에 제보하거나 경찰에 신고해야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시위자 진압하는 미 국토안보부 소속 경찰



미국 국토안보부 소속 경찰이 지난 10일(현지 시간) 미 워싱턴주 시애틀의 헨리 M. 잭슨 연방 청사 내부에서 한 시위자를 제압하고 있다.

35시간 마라톤 골프, 기네스 기록 도전



지난 10일(현지 시간) 미 뉴욕주 헨팅턴의 헨팅턴 크레센트 클럽에서 켈러치 예지히에가 티샷하고 있다. 예지히에는 35시간의 라운딩을 마쳐 이 부문 기네스 세계 기록 인증을 기다리고 있다. 기존의 기록은 지난 달 29일 영국에서 골프 강사가 도전한 32 시간이다. 나이저리아계인 예지히에는 “골프는 부자들만 하는 스포츠가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골프의 대중화와 다양성을 실천하고 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